

#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 글로벌 안보정세 전망

손경호

## I. 서론

- 일반적인 안보정세 전망과 달리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고찰하고자 함
- 전쟁 전망, 유럽과 러시아와의 관계, 러시아 대외정책, 전쟁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끼칠 영향이 주된 분석 영역이 될 것임
- 군사적인 분야 위주의 분석

## II. 전쟁의 범위

- 전쟁의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
- 한국 사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에 따라 발생한 분쟁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서구의 언론은 2014년 크림미아 병합을 전쟁의 시점으로 인식함
- 전쟁의 범위는 전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차원에서 중요함
- 2014년 크림미아 병합과 같은 해부터 시작된 돈바스 분쟁, 그리고 2022년의 전면전은 동일한 주체 사이에 진행되었음
- 돈바스 분쟁이 평화조약으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7월 27일 발효된 정화(cease-fire)로 소강상태가 유지되다가 러시아가 2021년 3월부터 대규모로 병력을 집중하여 긴장이 고조되었고 2022년 2월 전쟁이 확대되었음
- 결과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2014년 크림미아 병합으로부터 2022년 2월의 전면전을 포함한 일련의 분쟁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함

## III. 전황 예측

- 우크라이나군은 2023년 6월 서방의 지원 아래 대대적인 반격을 실시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으며 러시아군과 소모적인 대치상태에 있음
  - \*여름에 흑해 일대에서 거둔 일부 성공과 가을에 드니프르강 동안 헤르손 지역에 형성한 교두보 외에는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대통령 스스로 12월에 AP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신속한 결과를 추구했으나 달성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인정<sup>1)</sup>

- \* 젤렌스키 대통령과 잘루즈니(Valerii Zaluzhnyi) 총사령관 사이의 불화, 내년 병력 동원(40-50만) 계획과 병역 비리로 인한 병역 거부 및 탈주 현상
- \* 전투현장에서 포탄 부족 문제 심각-유럽과 미국의 생산량 부족<sup>2)</sup>
- \* 대부대급 제병협동작전 능력이 미숙, 전술적 역량 부족
-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전쟁 피로감을 느끼는 가운데 추가적인 지원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우크라이나가 짧은 시기에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임
  - \* 미국 의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던 6,140억 달러의 지원이 정부의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일부 공화당 의원의 방해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
  - \* EU가 우크라이나에 500억 유로(549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 역시 내부적인 반발에 부딪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함
  - \* 슬로바키아의 Robert Fico 총리와 네덜란드 총선에서 승리한 Geert Wilders 등 강경 우파 지도자들이 기존의 Viktor Orbán 헝가리 총리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방해할 것임<sup>3)</sup>
  - \*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미구의 대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
    - 우크라이나군은 우세를 확보하지 못하고 불리한 전쟁을 이어갈 것임
- 러시아는 장기전을 추구할 것임
  - \* 푸틴은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복속시키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신년 인터뷰에서 이를 밝힘
  - \* 러시아는 트럼프 당선이 가져올 결과를 충분히 알고 있어 전쟁을 최대한 장기전으로 수행하고자 함<sup>4)</sup>

#### IV. 유럽의 위기 극복 노력과 한계

- 러시아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방향성을 지닌 활발한 노력 지속
  - \* NATO와 EU가 2022년 수정된 안보 전략 발표,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4개국이 2022년과 2023년 사이 국가 안보 전략 발표,

---

1) Oz Katerji, "Ukraine Braces for Political Disaster in 2024," *Foreign Policy*, December 19, 2023, <https://foreignpolicy.com/2023/12/19/ukraine-2024-united-states-congress-aid-russia-war/?tpcc=recirc062621>(검색일: 2024.1.3.).

2) Ibid.

3) Ibid.

4) Ibid.

- 앞으로도 러시아의 전쟁으로 초래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 국가들의 노력이 지속될 것
- \*북방 2개국(NATO)에 가입하여 모든 유럽 국가가 러시아에 대항한 단일 군사동맹 아래 결집
  - NATO가 새로 가입한 국가들의 군사적 통합을 도모하고 확장된 지리적 범위(북극해)를 활용하여 러시아의 활동을 감시하고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전개할 것(제10차 북극권 총회에서 나토 군사위원회 의장은 북극이 나토의 역지 및 방어태세에 필수적인 지역임을 주장, 2023.10.20.-21<sup>5)</sup>)
- \*자국의 독자적인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는 움직임 지속할 것: 영국은 AUKUS / GCAP(Global Combat Air Program, 영국, 이탈리아, 일본)을 통해 유럽을 벗어나 글로벌 안보 협력 지속, 프랑스는 이전과 달리 NATO 동맹국들과 상호운용성 증대에 노력, 독일은 국가안보전략(2023.6), 중국전략(2023.7) 발표하여 국제 문제에 독자적인 목소리 낼 준비, 영국과 프랑스가 5년 만에 양국 정상회담(2023.10)을 열고 유럽의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한 협력 모색<sup>6)</sup>
  -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집단안보 체제 내에서 안보 문제에 대한 독자적인 이익과 목표를 위한 활동 공간을 확장할 것
-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글로벌 리치가 활발하게 나타날 것
  - \*NATO는 북극, 가상공간 등 새로운 영역과 AI 및 양자 컴퓨팅 등 새로운 분야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 북방지역계획(The New Regional Plan North)를 기반으로 북극에 대한 군사적 우위 확보 시도, 북극 방위를 위한 작전 수행 의도, 북극을 넘어 한국 등 AP4(아시아 태평양 4개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협력 강화할 것<sup>7)</sup>
  - \*AP4 국가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Individually Tailored Partnership Program) 체결, 개별 협력 파트너십 프로그램에서 협력을 강화(2023.7)
    - 협력분야가 11개 분야로 확장(대화와 협의, 대테러 협력, 군축·비확산, 신형 기술, 사이버 방위, 역량 개발 및 상호운용성, 상호운용성을 위한 실질 협력, 과학기술, 기후변화와 안보, 여성 평화안보, 공공 외교)

5)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2023년 정세 평가 및 2024년 전망』(2023), p. 61.

6) 국가안보전략연구원(2023), p. 60.

7)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 p. 62.

- 대화 위주의 협력에서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으로 발전할 것<sup>8)</sup>
- 전쟁이 장기화하고 승리의 전망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대응에 근본적 한계 노정
  - 2023년 빌니우스(Vilnius)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으로써 당면한 러시아와의 갈등은 신중하게 관리해 갈 것임을 시사<sup>9)</sup>
  - 전쟁이 난관에 봉착한 것은 NATO의 큰 부담일 것이며 높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 역시 부담이 될 것임<sup>10)</sup>

## V. 러시아의 국내 상황과 대외정책 전망

- 푸틴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배를 이어갈 것
  - \*3월 17일 선거에서 푸틴이 재선될 것임, 러시아 국민은 푸틴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으나 전쟁이 현재 상태로 유지되면서 생활에 큰 지장을 미치지 않는 한 경제 상황의 개선, 통치 그룹의 국민 장악 노력에 의해 푸틴 체제를 이어갈 것임
  - (러시아 독립 인권단체 OVD-Info에 의하면 전면전 개시 이후 2023년 10월까지 반전 운동으로 인해 19,747명이 체포되었고 748명이 기소되었으며 그 가운데 254명이 실형을 선고받음<sup>11)</sup>)
- 푸틴은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며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려 할 것임
  - \*러시아군 2023년 하반기 전투에서 방어의 우위 활용, 우크라이나의 공세 저지 성공, 전세 만회 시도
  - 이란산 저가 드론 및 북한산 포탄 조달 통한 탄약 보급 개선, 자체 포탄 및 미사일 생산 확대, 전비 확충을 통해 전쟁 수행 역량 향상, 2024년 국방예산 70% 증액(10조 8,000억 루블, 한화 약 157조 4,640억 원, 2024년 전체 예산 중 30~40%에 달하는 규모<sup>12)</sup>)

8)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4 국제정세전망』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3), pp. 99-100.

9) Ed Arnold, "The NATO Vilnius Summit: Bucharest 2.0?" *RUSI*, July 13, 2013, <https://www.rusi.org/explore-our-research/publications/commentary/nato-vilnius-summit-bucharest-20>(검색일: 2024.1.6.).

10) Ravi Agrawal, "Stephen Walt on What to Expect from 2024," *Foreign Policy*, January 1, 2024, [https://foreignpolicy.com/2024/01/01/fp-live-stephen-walt-took-ahead-global-elections-india-china-ukraine-israel-gaza-2024/#cookie\\_message\\_anchor](https://foreignpolicy.com/2024/01/01/fp-live-stephen-walt-took-ahead-global-elections-india-china-ukraine-israel-gaza-2024/#cookie_message_anchor)(검색일: 2024.1.3.).

11)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 p. 57.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러시아, 2024년 예산 중 약 40%를 군대와 내무군에 편성," 2023.12.6., [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57512&mid=a305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04010100&currentPage=4&pageCnt=10](https://www.kiep.go.kr/aif/newsBriefDetail.es?brdctsNo=357512&mid=a305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4&search_region=04010100&currentPage=4&pageCnt=10)(검색일: 2024.1.5.).

- 향후 이란 및 북한과 군사협력을 계속할 것임, 다만 북한에 일정 부분 첨단 무기 기술을 제공할 것이나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재진입 기술을 제공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음
- 전략무기 및 재래식 군비통제분야에서 서방과의 대결을 심화해 갈 것
  - \*러시아는 New Start 이행 중단을 발표(2023.2.22.)하고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2023.6.17. 첫 배치 완료 발표)하였고, CTBT 비준을 철회(2023.10.20.)하고 CFE에서 탈퇴(2023.11.7.)하였음<sup>13)</sup>
  - 당면한 전쟁과 연계하여 서방을 압박하고 핵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방편으로 활용할 것임
  - 2020년 발표한 재래식 전쟁에서의 핵 선제 사용 독트린과 함께 우크라이나 및 서방 국가에 큰 부담 가할 것<sup>14)</sup>
-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것
  - \*2023년 3월과 10월 양국 정상회담 실시, 3월에는 타이완 문제에 대한 러시아 입장 발표, 대중 LNG 수출 협력, 원자력 협력 합의
  - \*군사협력 강화: 2023년 6월 연합 폭격기 비행(Tu-95×2 + H-6×2) 및 동해상 연합 함대 기동훈련, 2023년 4월 북극해 이용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및 연합 훈련<sup>15)</sup>
  -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한 물자 획득, 에너지 자원 수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유지, 그리고 북극해 활용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임
-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에 집중
  - \*2023년 발표된 「외교정책 개념」에 인도를 대표로 한 성장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할 것 명시(특히 경제제재로 인한 교역 상대국으로 접근), 이슬람권 국가 가운데는 이란, 시리아, 튀르키예, 사우디 아라비아, 이집트와의 협력 강조, 튀르키예와 2023년 4월 원자력 발전소를 위한 핵 연료 공급
  - 향후 참여국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SCO, BRICS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과 서방의 “규범에 기반한 질서(rule based order)”를 극복하고 다극적 국제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할 것임

13)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 p. 57.

14) Iida Masafumi, Arakaki Hiromu, and Hasegawa Takeyuki, *Chin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Striving for a New International Order* (Tokyo: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2023). pp. 40-41.

15) Ibid.

## VI. 결론 및 함의

-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 서방의 전쟁 피로 누적과 정치적 변화에 따른 지원의 감소, 러시아의 전쟁 수행체계 개선, 우크라이나의 국내 상황이 맞물려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될 것
- NATO의 주도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도전에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갈 것이나 전쟁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전통적인 강대국들은 전략적 주도권을 발휘하며 독자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할 것임
- 러시아는 푸틴 5기를 맞이할 것이며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고 서방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변경하기 위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
-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대결, 유럽의 글로벌 리치 및 러시아의 중국과의 협력 강화 및 글로벌 사우스에의 접근 그리고 북한과의 군사협력은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유럽/아시아 태평양에서의 동시 대결, 동북아에서의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조를 고착화할 것이며 다양한 국가들의 블록화를 촉진할 것임
  - 다층적 대결 구조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한·미·일 협력을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북한의 핵 및 통상 전력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강하며, NATO 및 EU와의 협력을 통해 촘촘한 안보 협력 태세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서방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해야 함
  - 블록화된 대결 구도에서 북한이 국내 정세를 좌우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향상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복합적인 준비가 필요함, 특히 북한은 4월의 총선을 유리한 국면을 생성하는 계기로 삼으려 할 것임
  - 올해는 1월 13일부터 시작되는 대만 총통선거, 2월의 인도네시아 대선, 3월의 러시아 대선, 5월 인도 대선, 그리고 11월의 미국 대선까지 거의 모든 주요 국가가 리더십을 결정하는 선거를 치러 국제질서상 많은 유동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함